안녕하세요?

이 시간에는 도교를
얘기해 볼까 합니다.

도교는 '영원과 불멸성의 종교'라고
제가 정리를 했는데요.

되게 독특한 종교 전통 중의 하나입니다.

특히나 유교라든지 불교라든지
여타 종교에 비교했을 때

아주 흥미롭고 재미있는 종교 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일단 도교라고 하는 것은 서구에서
'타오이즘'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타이오즘(Taoism)이라고 하는 게
'도(道)' '타오'라고 하는 것에

'ism' '주의'라고 하는 명사로 만드는
접미어를 붙인 거죠.

우리 불교 하면 부디즘(Buddhism)
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유교는 컨퓨셔니즘(Confucianism)처럼
공자의 이름에 'ism'을 붙이거나

혹은 붓다라고 하는 존재에
'ism'을 붙이면 불교가 되는 것처럼

도교는 사람 이름에 붙인 게 아니라
'도(道)'라는 단어에 'ism'을 붙여서

서구 사람들이 도교를
이해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도교의 '도(道)'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도(道)'가 무엇인가,

이것을 10분 안에
말씀드린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노자의 <도덕경>에
제일 앞에 나오지만

"도(道)라는 것을 말로 표현할 수 없다"
하는 그런 것이

<도덕경>의 가장 첫머리에
나오게 되는데

이 얘기는 '도(道)'라고 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저희가 정의할 수도 없고

그다음에 이름 붙여서

남들을 이해시킬 수도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도교의
도(道)가 가장 중요한 개념이어서

도(道)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군요.

도(道)라는 게 무엇인가라고 하면

도(道)를 크게 몇 가지 차원에서
나누어 봅니다.

일단 도(道)라고 하는 것은

만물의 존재의 근원
그러니까 'Ground of Being'

존재의 근원으로서
도(道)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만물의
근원으로서의 도(道) 외에

이 사물들이 현상 세계에서
존재하는 특정한 방식을

또 도(道)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동시에 인간을 포함해서 만물이,
존재하고 있는 이 만물이

아까 말씀드렸던 도(道),
근원으로서의 도(道)에

되돌아가는 방식도
도(道)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Way of Living'

삶의 방식으로서의
'way'라고 하는 것도 도(道)이고,

그다음에 존재하고 있는
존재 방식에 관한 것도

다 도(道)라고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이 모든 것들을 망라해서

이 모든 것들이 없지 않고
있게 만드는 존재의 근거,

근원으로서도 이것을
도(道)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도(道)라는 것이

참으로 여러 가지 측면들을
내포하고 있는

대단히 역동적인 개념이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죠.

<도덕경> '노자'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도덕경>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혹은 인간과 같은 여러 존재가

도(道)를 따라서 살게 되면
생기게 되는 힘이 '덕'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사실 덕을 쌓는 거죠.

덕을 쌓는다는 것,
덕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은

사물의 섭리, 천리,
혹은 이 존재하는 방식

근원으로 되돌아가는
방식에 입각해서

잘살아 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도덕경>에 노자가 남긴 말씀을
책으로 엮은 것을

저희가 <도덕경>이라고 하는데요.

노자와 <도덕경>이 도교의 이해에
대단히 중요합니다.

'노자'라고 하는 것은 늙은 아이,
혹은 늙은 선생이라고 번역되는데

나서부터 나이를 굉장히 많이 먹은
모습으로 태어났다고 하는

전설 같은 얘기들이 전해집니다만

여하튼 노자는 도교의
시조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공자도 스승으로 인정하는

유학, 유학 전통의, 유교 전통의
또 성인이기도 합니다.

물론 나중에, 이후에 도교 전통에서는

종교적인 움직임에서
태상노군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노자를 아예 신격화하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노자라고 하는 인물 자체가

남긴 주요한 가르침인 <도덕경>이

흥미롭게도 서구에서는
가장 많이 번역된

동양 서적 중의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이 볼 때는
대단히 동양적인 종교성

혹은 동양적인 사유체계와
사상체계를 잘 보여주는 게

이 <도덕경>이라고 생각을 하고

<도덕경>에 굉장히 큰
매력을 느끼는 거죠.

어떤 점에서 매력을 느끼는지는
좀 더 이따가 설명 드리겠습니다만

여하튼 도덕경에 나와 있는
가장 중요한 가르침은

'무위자연'이라고 얘기하는
자연처럼 무위하는 삶을

그러니까 억지로 무엇을 성취하거나

혹은 주어진 섭리에 어긋나거나
반하는 방식으로 살지 말고

<도덕경>에 나오는 가장 전형적인
사물의 예가 있지 않습니까?

물, 상선약수라고 하는데
가장 지고한 선, 올바름은 물과 같다.

물과 같은 삶이라고 하는 얘기가

물이라는 게 그릇의 모양에 따라서
주변 환경과 온도에 따라서

얼기도 하고 녹기도 하고
기체로 변하기도 하고

동시에 네모난 그릇 용기는
네모난 모습으로

동그란 그릇에는 동그란 모습으로

마치 어떤 것과도 주변과 다투지 않고

자신의 모습을 대단히 유연하게
바꿔 가는 것이 물의 상징인데

바로 물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인간이 무위하게 뭔가 사물과 질서와
어긋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가장 전형적인 형태로
강조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동시에 이런 비슷한 얘기로는
장자가 얘기하고 있는

'포정해우'라고 하는
고사가 있습니다.

그게 양혜왕 얘기 나오면서
그 시대에 가장

소위 도살업자죠. 도축업자인데
소를 잘 잡는 사람 얘기죠.

그런데 이 사람 얘기가

소의 살과 뼈를, 근육을 골라내는 일을
칼을 가지고 하는데

이 칼이 아무리 소를
많이 잡고 도축을 해도

칼날이 상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이유가 무엇이냐고 하면

뼈와 살과 근육을 잇게 되는
그 중간지점, 그러니까 칼이 가야 될 길에

칼날을 딱 놓는 순간
어떤 뼈에 부딪힘에도

칼날이 나가고 근육에 또 닿으면
칼날이 닳을 텐데

이런 것 없이
아주 자연스럽게 해체하는,

물론 아이러니는 그것이죠.

그렇게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칼을 갈았겠습니까?

다시 말하자면 안 되는 일들을
끊임없이, 끊임없이 경험한 이후에

그렇게 자연스럽게 되는
경지에 올라간다는 거죠.

말 그대로 도(道)에 따른 삶을
대단히 높은 덕으로

구현하게 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고사가

장자의 '포정해우'인 거죠.

그리고 또 동시에 장자 얘기에
장자의 '나비의 꿈'이라고 하는

'호접지몽'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호접지몽이라고 하는 얘기 자체는
장자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장자가 나비 꿈을 꾸고 나서
"이게 내가 나비가 된 꿈을 꾼 건가,

아니면 나비가 장자가 된 꿈을
꾸고 있는 건가" 하는 말로 물어봅니다.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영화 <매트릭스> 있었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가
진짜 세계가 아니고

참된 세계는 따로 있다고
하는 얘기인데

그 얘기 자체가 사실은
노자 <도덕경>에 나와 있는 존재론

다시 말해서 눈에 보이는 세계가
존재의 근원이 아니고

도(道)라고 하는 이름 붙일 수 없고

형언할 수 없는 그 무엇이
참된 실제이고

이것은 마치 이 세상은 나비의 꿈처럼

혹은 장자의 나비 꿈,
혹은 나비가 장자를 꿈꾸는 것처럼

우리는 실체성이 없다고 하는
대단히 강력한 가르침을 전하고

이런 관점에서 보면 장자의 호접지몽은

붓다가 현실 세계, 혹은 실체성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에 비해서

대단히 문학적이고 유머러스한 데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도교가 추구하는
이상적 인간형은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신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영혼과 불멸성의 종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도교가 독특한 것이 보통은
종교들이 불멸성을 획득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내면의 깊숙한 존재의
본성을 깨달아서 자신 속에 죽지 않는

그러니까 영혼 불멸한 어떤 측면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거나

혹은 육체적으로 죽은 다음에
천상의 세계나 사후세계에 가서

영생을 얻는다는 하는 얘기를 하는데

도교는 뜻밖에도 육체를 가진 상태에서
불멸한 존재가 되겠다.

이건 소위 신선이죠.

이것을 추구한 보기 드문
종교 중의 하나입니다.

종교의 이상향이라고 하는 것이

유교 같으면 성인, 불교 같으면 붓다,
기독교 같으면 메시아,

물론 우리 모두가 다
메시아가 될 수 있는 건 아닙니다만

여하튼 종교가 제시한
이상향이 있다고 보면

이렇게 육체를 가진 상태에서

불멸성을 체득하겠다는 것을
전면에 내세운 종교는

도교가 거의 유일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불사의 추구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소위 내단과 외단

그러니까 내단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TV, 특히 중국 무협 영화나
무협 소설을 보면

태극권과 같은 기공 수련을 통해서
소위 단전을 만들고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기(氣)라고
하는 것들을 모아서

육체를 불사의 지경으로
만들어 내는 것과 관련된 얘기들이

도교의 수행법이라든지
도교의 가르침으로

굉장히 많이 말씀 되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도교는 다른 종교와 달리

육체적 불사를 꿈꿨다는 점에서
대단히 독특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육체적 불사를
달성하기 위한 방식을

대단히 체계적으로
발전시키기도 했습니다.

일단 내단과 외단,
특히 외단이라고 하는 것은

불사하게 만드는 약물을 만들어서

그것을 먹고서 육체적 불멸을
도모하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뿐만 아니라 저희가 알고 있는
태극권과 같은

그래서 소위 자연의 흐르는 기와 같은
에너지를 자기 몸속에 채우고

그것들을 더 많이 쌓음으로써
육체적 생명을 지속시키는

그래서 도교의 가장
대표적인 상징적 동물을

우리가 십장생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학부터 시작해서 오래 사는
동물들에 관한 얘기들도

다 도교적 전통에서 수명을
연장시키는 관점에서 얘기가 나오죠.

특히 도교에서 양생법이라고 부르는

신체의 활력과 생명력을
키우는 것과 관련된 얘기들이

대단히 많이 발전됐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도교에서는 소위
우리가 약학이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신체적 질병과 이 질병을 치유해서
건강을 유지하는 것과 관련된 얘기들을

대단히 많이 발전시켰고

또 동시에 어떤 음식,
특히나 약초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먹고서 수명을
연장시키는 것과 관련된 얘기들을

대단히 많이 발전시킵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소위 우리가
현대의 도교 얘기를 해 보면

우리나라는 도관이라고 하는 것이
거의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렇지만 현대에서는 대만에 가면
도교라는 게 굉장히 성행하니까

도관이라고 하는 도교의
전통의 사당들이 있는데

이 도관에 가면 도사들이 있는 거죠.

도사라고 하는 존재가 실제로는
부적부터 시작해서 주문과 같은 것들

그다음에 우리가
샤머니즘에서 얘기한 치병

그다음에 귀신을 쫓는 것과 같은
여러 종교적인 역할들을

다 하는 사람들이 도사,
도관의 도사인 거죠.

그리고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지금
도교가 성행하고 있진 않습니다만

우리 일상용어 중에서

예컨대 무엇을 되게 잘하면
'도통했다'고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저 사람 참 도사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소위 포정해우의 고사처럼
어떤 일에 달관의 경지

너무너무 잘하는 경지에 이르게 되면

사물이 존재하는 도(道)에
통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도교가 이런 여러 가지 장점들과
독특성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도교가 성행하지 못한
이유 중의 하나가 샤머니즘,

무속이 워낙 강력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유교나 불교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대체재가,

종교의 비교적 관점에서 보면
그 독특성 자체를

다른 종교 전통이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런데 도교의 특징은
사실 우리나라로 치면

도교의 기능을 무속이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도교는 우리나라에서
예컨대 선도처럼 신선이 되거나

산속 깊숙이 들어가서 수행을 하는
아주 일부 전통 외에는

민중적으로 퍼지는 무속과 같은
혹은 대만의 도교와 같은 영향력은

가지고 있지 못하다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도교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렸는데

정리를 해 보면 도교는 가장 오래된
동양 종교 전통 중의 하나이고

중국에서 주로 발전했죠.

노자와 장자의 사상
특히 도(道)라고 하는

참으로 이해하기 쉽지 않은
그렇지만 사물에 편재하고

사물의 이면에 존재하는 존재의 근원인
도(道)라고 하는

대단히 매력적인 핵심개념에서 출발한

종교라고 하는 것으로
저희가 정리할 수 있고요.

끝으로 도교는 불교와 유교와
비교했을 경우에

대단히 독특하고 대체 불가능한
어떤 성향들을 가지고 있지만

대한민국의 경우에,
우리나라의 역사의 경우에는

샤머니즘과 경합적인 위치에 있어서

샤머니즘을 이기지 못했다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서양 종교 전통들을 본격적으로

기독교부터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